AI 뉴스와 용어
월·수·금 오전 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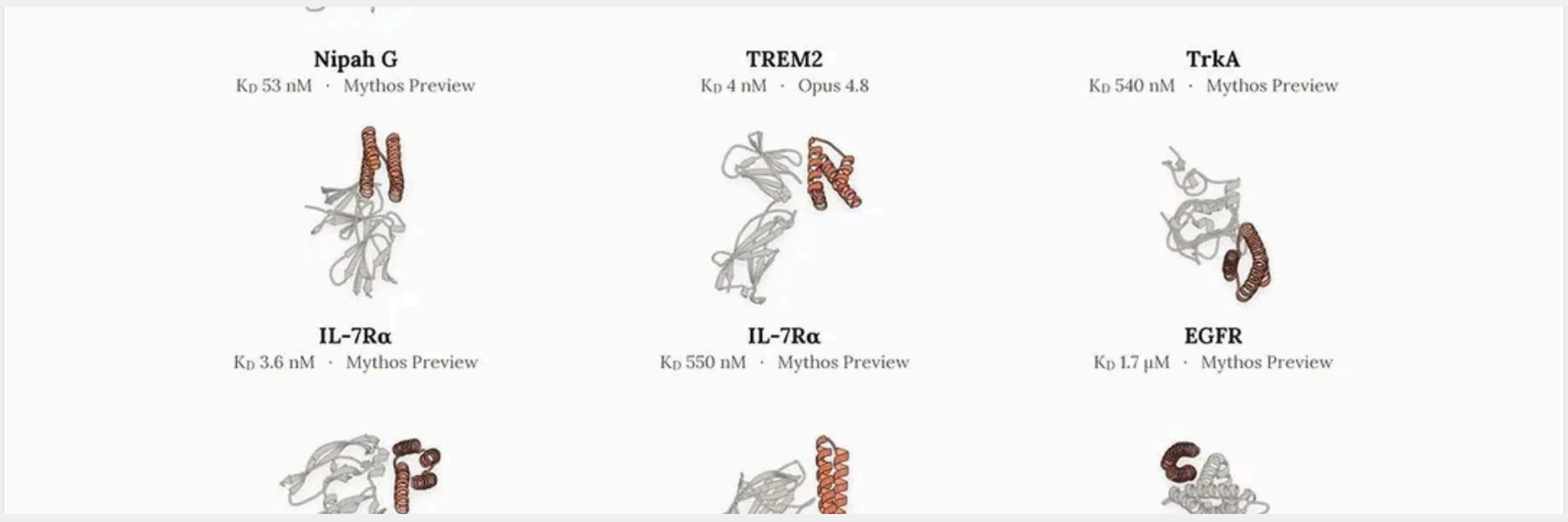
LAB METAL
어려운 AI, 쉽고 재미있게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
metallab.ai

제 7 호 |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 오늘의 AI

클로드, 신약 결합 단백질 설계에서 업계 평균 웃도는 성공률 기록

앤스로픽이 15개 표적 중 14개에 대해 클로드가 자율 설계한 단백질 바인더를 외부 실험실에서 검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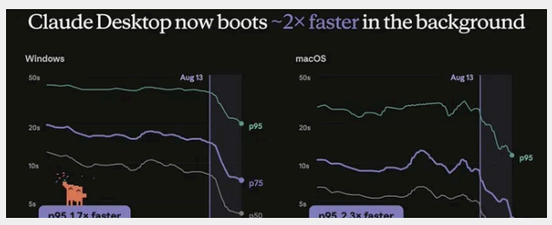


· 클로드, 신약 결합 단백질 설계에서 업계 평균 웃도는 성공률 기록

앤스로픽(Anthropic)이 자사 모델 클로드(Claude)에게 신약 개발의 첫 관문인 '단백질 바인더 설계'를 맡기고 그 결과를 X 게시물을 통해 공개했다. 사람이 작성한 단백질 설계 프롬프트 하나로, 클로드는 15개 표적 단백질 중 14개에 대해 결합 가능한 새 단백질을 처음부터(de novo) 설계했다. 이렇게 나온 설계는 앤스로픽이 직접 검증하지 않았다. 제3의 실험실인 Adaptyv Bio와 Twist Bioscience가 독립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하고 실제 결합 여부를 테스트했다.

약물 대부분은 몸속 특정 표적에 달라붙어 그 기능을 막거나 바꾸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표적에 딱 맞게 달라붙는 분자를 설계하는 일이 신약 개발의 출발점인데, 지금까지는 표적 하나당 전문가가 몇 주에서 몇 달을 들여 수많은 후보를 걸러내야 했다. 단백질 바인더 설계는 실제 약물 설계보다는 쉬운 과제지만, AI가 이 단계를 얼마나 잘 해내는지를 가늠하는 유용한 시험대로 쓰인다. 지금 이 분야에서 사람이 설계한 바인더가 실제로 결합에 성공하는 비율은 대개 10~1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공개에서 성공률만큼 눈여겨볼 대목은 클로드가 이 설계를 '어떻게' 해냈느냐다. 사람이 표적마다 후보를 돌린 게 아니라, 클로드가 최상위 오케스트레이터(orchestrator) — 여러 하위 에이전트를 부리는 지휘자 — 로 서서 캠페인 전체를 스스로 굴렸다. 콜센터에 비유하면, 사람이 상담원을 한 명씩 지시하는 대신 팀장 AI 하나에게 "48시간 안에 끝내라"고 던지고 방을 나간 셈이다.



Execute the 24-hour, $10,000 de novo miniprotein binder design campaign exactly as specified in the campaign prompt. The prompt is in your system context and is also attached to this message as a markdown file (the two are the same document; the system-context copy is authoritative and is what every sub-agent at every depth carries). The two figures the prompt references (Figure 1 and Figure 2, from corpus folder "06 Prompt Figures") are also attached. You are the top-level orchestrator. Do not ask me any questions or wait for approval.

This is a FRESH campaign in a FRESH project, in a workspace newly created for this run. It is not a resume of any prior run; at kickoff there is no prior campaign state of yours to reconcile against. The Slack channel, the Drive deliverables folder, and the Modal account are shared with other independent campaigns — including several concurrent single-target campaigns against other targets that started at or near your T0 — and the prompt's Logistics and Isolation sections govern how to treat them. You will observe those campaigns' Modal volumes, apps, and running sandboxes, their Slack threads, and their Drive sub-folders: do not read, write, delete, terminate, or post into any of them, and do not treat their existence as an anomaly to report or reconcile. Your governor and submitgate() count live GPU sandboxes filtered by YOUR projecttag only (per the prompt): account-wide GPU load outside that campaign state of yours to reconcile against. The Slack channel and the Drive deliverables folder are shared with other independent campaigns and the prompt's Logistics and Isolation sections govern how to treat them. Any Modal volumes that already exist on the account belong to other campaigns and the same rules apply. computedetails for byoc:modal starts empty in this workspace; keep it that way (do not write to computedetails at any point; record your own environment findings as artifacts in this project instead).

A setup session was run in this workspace immediately before this message to pre-approve network domains and verify connectors read-only. It left NO persistent campaign state (no campaign volumes, no governor file, no Slack posts, no Drive activity). It is not part of your campaign and will not appear in your project's frames table or artifact store.

Clock: T0 is the timestamp of this message. End time is T0 + 48 hours.

Your first actions, in this order: (a) determine your model identifier from host.currentmodel() and your orchestrator root frameid; (b) dispatch the SETUP sub-agent via host.delegate and BLOCK on its return: SETUP (and only SETUP) creates the four campaign Modal volumes named campaign-<model>-<YYYY-MM-DD>-<frameid8>-{state,ledger,out,novelty}, seeds

오늘 지면

1 클로드, 신약 결합 단백질 설계에서 업계 평균 웃도는 성공률 기록

2 챗GPT 워크, 미팅 브리핑부터 전략덱까지 사내 시연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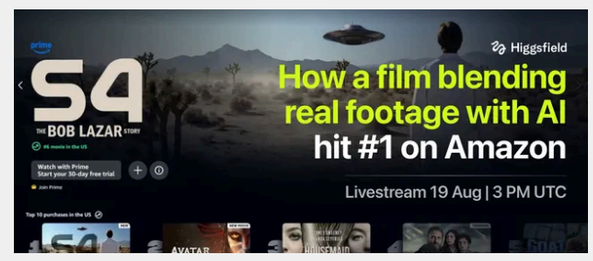
3 커서, 깃허브 장애 날 노려 코드 호스팅 'Origin' 출시

4 크리에이티브
힉스필드 크리에이터 영화, 아마존서 '아바타' 위에 올라

5 클로드 데스크톱, 백그라운드 부팅 속도 최대 2.3배 빨라져

이 지면은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아침 구독자 메일함으로 나간 레터를 신문 판형으로 다시 조판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metallab.ai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크 리 에 이 티 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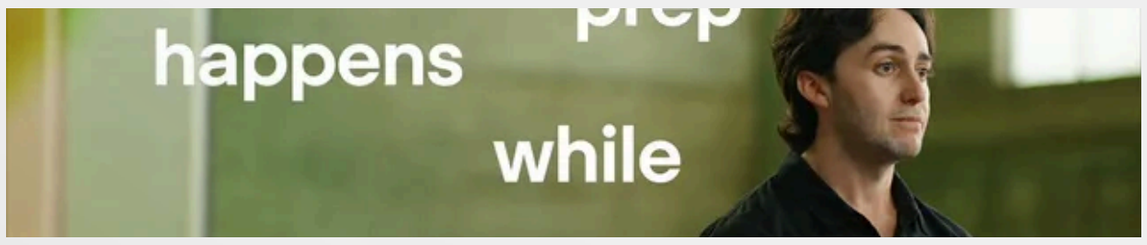


힉스필드 크리에이터 영화, 아마존서 '아바타' 위에 올라

힉스필드가 자사 크리에이터 파트너십 프로그램(CPP)에 참여 중인 감독 Christopher Matteau의 영화 'S4: The Bob Lazar Story'가 아마존 인기 차트에서 '아바타'보다 위 순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힉스필드는 해당 게시물에서 "hit #1 on Amazon, right above 'Avatar'"(아마존에서 1위를 기록했고 바로 위가 '아바타'다)라고 전했다. 어떤 카테고리의 차트인지, 순위 집계 시점은 게시물에 구

▶ 2면에 계속

챗GPT 워크, 미팅 브리핑부터 전략덱까지 사내 시연 공개



오픈AI 영업팀의 Alex는 고객 통화 한 건에 하루의 절반을 썼다고 말한다. 통화 전에는 계정 이력을 뒤지고, 통화가 끝나면 회의록을 쓰고 후속 이메일을 다듬고 CRM에 넣을 내용을 손으로 옮기는 순서다. 오픈AI가 8월 18일 올린 튜토리얼 영상에서 Alex는 그 일을 다섯 단계로 줄여 자기 화면에 그대로 펼쳐 보인다.

같은 날 오픈AI는 3분 간격으로 영상 세 편을 올렸다. 영업팀 Alex는 고객 미팅 브리핑을, 마케팅팀 Sahil은 출시 블로그 초안을, 전략·사업운영팀 Arvind는 리더십 보고용 전략덱을 만든다. 세 사람 모두 "나는 이 순서로 쓴다"를 단계로 끊어 보여준다. 아래에는 세 영상에 나온 단계와 실제로 입력한 문장, 그리고 오픈AI가 따로 공개한 영업용 프롬프트 전문을 옮겼다. 읽으면서 그대로 따라 할 수 있게 순서를 유지했다.

커서, 깃허브 장애 날 노려 코드 호스팅 'Origin'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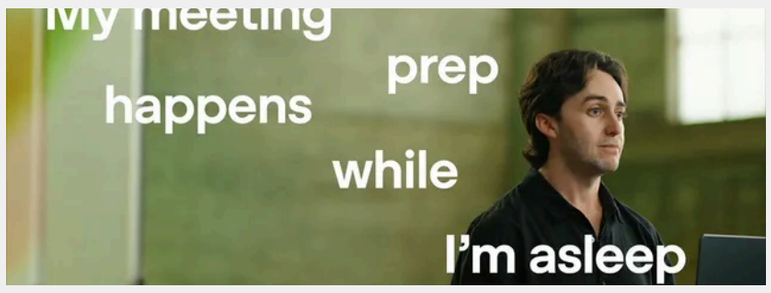
지난 18일(현지시간) 깃허브가 세계적으로 6시간 넘게 접속 장애를 겪었다. 오류율은 한때 20%에 달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커서는 깃허브를 정면으로 겨냥한 코드 호스팅 플랫폼 Origin을 출시했다. 기술매체 LeadDev의 분석에 따르면 깃허브는 최근 1년간 257차례 장애를 겪었고, 이 매체 기자 찰스 험블은 이를 두고 유명 사용자들의 이탈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짚었다.

깃허브는 전 세계 개발자가 코드를 올리고 함께 고치는 창고 역할을 해온 곳이다. 2007년 세워져 2012년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됐고, 지난해 10월 기준 1억8000만명이 이곳에서 코드를 관리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반복되는 장애에도 여전히 세계 최대 코드 호스팅 서비스라는 지위는 흔들리지 않은 셈이다.

▶ 2면에 계속

◀ 1면에서 계속

챗GPT 워크, 미팅 브리핑부터 전략덱까지 사내 시연 공개



1 오픈AI가 2026년 8월 18일 공개한 챗GPT 워크 튜토리얼 영상 3편의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옮겼다

2 영업 Alex·마케팅 Sahil·전략 Arvind 세 시연은 모드 전환 → 도구 연결 → 질문과 형식 지정 → 중간 산출물 확인 → 사람 승인이라는 같은 뼈대를 쓴다

3 오픈AI 아카데미가 공개한 영업용 프롬프트 5종을 한국어 전문으로 실어 그대로 복사해 쓸 수 있게 했다

챗GPT 워크는 오픈AI가 7월 9일 공개한 업무용 모드다. 별도 앱이 아니라 같은 챗GPT 안에서 모드를 바꿔 쓰고, GPT-5.6 위에서 돌며 코딩 에이전트 코덱스의 기술을 물려받았다. 오픈AI가 정리한 구분은 단순하다. 빠른 답, 브레인스토밍, 짧은 초안은 Chat이다. 챗GPT가 흩어진 자료에서 맥락을 모으고 여러 단계를 거쳐 브리프·분석·덱·스프레드시트 같은 검토 가능한 완성물을 내놔야 하면 Work다.

워크에서 새로 생기는 장치는 셋이다. 플러그인은 자료가 있는 곳을 연결한다 — 슬랙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구글 드라이브와 셰어포인트, 이메일과 캘린더, CRM, 프로젝트 관리 도구다. 오픈AI가 공개 화면에 띄운 목록에는 구글 드라이브·아웃룩·지메일·팀즈·슬랙·셰어포인트·세일즈포스·어도비 애크로뱃이 있었다. 예약 작업은 한 번 실행, 일정에 맞춘 반복, 특정 사건이 생겼을 때 실행, 변화 감시 넷 중에서 고른다. 승인은 사용자 몫으로 남는다. 오픈AI는 "무엇에 접근할지, 언제 확인을 받을지, 행동에 옮기기 전에 언제 승인을 받을지는 당신이 정한다"고 썼다.

가장 싸게 시작하는 길은 데스크톱 앱이다. 무료 요금제에서도 Work 모드가 열린다.

◀ 1면에서 계속

커서, 깃허브 장애 날 노려 코드 호스팅 'Origin' 출시



1 커서가 이번 주 코드 호스팅 플랫폼 Origin을 출시해 깃허브가 담당해온 저장소·PR·협업 기능을 그대로 옮겨왔다

2 Origin 출시 당일 깃허브는 6시간 넘게 세계적 장애를 겪었고 오류율이 20%에 달했다. 최근 1년간 장애만 257건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3 Origin은 깃허브 계정을 연결해 저장소를 동기화하는 방식으로 깃허브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며, 에이전트 네이티브 기능과 앱 생태계 확장이 예고됐다

Origin은 깃허브가 담당해온 핵심 기능을 그대로 옮겨왔다. 팀원끼리 코드베이스를 같이 작업하고, 코드를 열람·수정하고, 다른 사람이 올린 수정 제안(PR)을 처리하고, 저장소에 코드를 보관하는 일까지 한 화면에서 처리한다. 다만 Origin을 쓴다고 깃허브를 그만 써야 하는 건 아니다. 커서는 자사 블로그에서 "깃허브 저장소는 커서가 호스팅하는 저장소와 나란히 놓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깃허브 계정을 커서에 연결하면 조직 단위로 저장소를 골라 동기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커서는 이와 함께 '에이전트 네이티브' 기능을 곧 선보이겠다고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고, 코딩 작업 전반을 지원할 더 넓은 앱 생태계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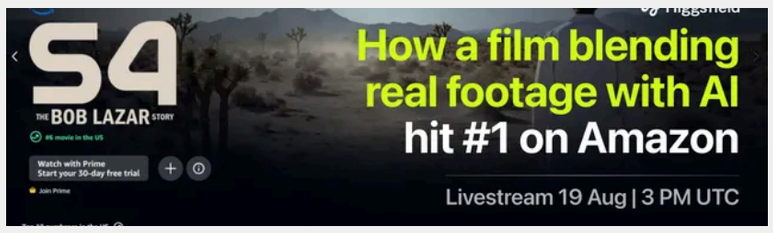
커서는 원래 AI 코드 편집기다. 화면 안에서 앤스로픽의 클로드, 오픈AI의 GPT,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다른 회사 모델을 골라 쓸 수 있게 해주는 한편, 컴포저라는 자체 모델도 직접 훈련해 함께 제공해왔다. 2026년 8월 스페이스X가 커서를 인수하면서 커서는 그록을 만드는 xAI와 같은 식구가 됐다. 코드 편집기에서 출발한 회사가 저장소 호스팅까지 손을 뻗은 셈이다.

Origin이라는 이름은 이번이 처음 등장한 게 아니다. 지난 13일 커서는 'Cursor Origin(Cursor Review)'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파트너를 대상으로 비공개 베타를 진행 중이었고, 사이드바에 Codebase·Review 탭을 붙여 깃허브 저장소를 동기화하는 기능을 시험하고 있었다. 하루 뒤인 14일에는 벤처캐피털 a16z가 커서 공동창업자 마이클 트루엘의 2025년 인터뷰 발언을 다시 공유했는데, 그는 당시 모델 자체 개발과 멀티프로덕트 전환, 'AI 코딩 번들' 구축을 커서의 전략 축으로 꼽은 바 있다. 비공개 베타로 다지던 기능이 일주일여 만에 정식 출시로 이어진 흐름이다.

◀ 1면에서 계속

크리에이티브

힉스필드 크리에이터 영화, 아마존서 '아바타' 위에 올라



1 힉스필드 크리에이터 파트너십 프로그램(CPP) 소속 크리스토퍼 마토가 참여한 영화 'S4: The Bob Lazar Story'가 아마존 인기 차트에서 '아바타'보다 위에 올랐다고 힉스필드가 밝혔다

2 이 영화의 하이브리드는 세 층 구조다 — 현재 시점 실사 인터뷰가 뼈대, S4 시설과 '스포츠 모델' 원반은 언리얼 엔진 5 재현, 1988~89년 젊은 라자와 이동 장면은 AI 생성 영상이 맡았다

3 힉스필드는 로튼토마토 96%라고 소개했지만 8월 19일 실측 95%는 관객 점수(팝콘미터)이고 평론가 리뷰는 0건이다. 크레딧도 힉스필드는 마토만 감독으로 적었으나 제작사는 루이지 벤디텔리를 감독, 마토를 VFX 총괄 겸 공동감독으로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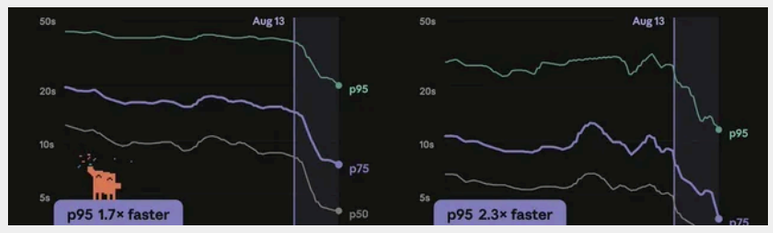
크레딧은 조금 더 복잡하다. 제작사 프로젝트 그라비타우르(Project Gravitaur)의 크루 페이지는 루이지 벤디텔리(Luigi Vendittelli)를 총괄 프로듀서 겸 감독으로, 마토를 VFX 총괄 겸 공동감독으로 적고 있다. 로튼토마토는 두 사람을 공동 감독으로 표기한다. 힉스필드 게시물은 마토만 감독으로 소개했다. S4 자체가 힉스필드의 제작 도구로 만들어졌는지도 이 소개 문구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향후 작품은 힉스필드 플랫폼에서 제작 중이라는 점은 명시돼 있다.

'S4: The Bob Lazar Story'는 러닝타임 114분짜리 다큐멘터리로 2026년 4월 3일 아마존 등 디지털 플랫폼에 공개됐다. 물리학자를 자처한 밥 라자가 1989년 라스베이거스 지역 방송에서 조지 냅(George Knapp) 기자와의 인터뷰로 처음 알려진 뒤 30여 년간 이어진 주장 — 네바다주 S4 시설에서 외계 비행체를 역설계했다는 — 을 라자 본인의 진술로 다시 따라간다.

① 실사 인터뷰가 뼈대다. 현재 시점의 라자 본인과 주변 인물 인터뷰가 영화의 축이다. 제작사 소개에 따르면 진 허프(Gene Huff), 조지 냅, 마리오 산타크루즈(Mario Santa Cruz), 조이 라자(Joy Lazar)의 인터뷰와 라자의 일상 촬영분이 들어간다. 조지 냅은 1989년 라자를 처음 방송에 내보낸 기자 본인이다.

클로드 데스크톱, 백그라운드 부팅 속도 최대 2.3배 빨라져

타이머 스로틀링과 절전모드로 늦었던 실행 속도, 앤스로픽이 한 달 만에 개선



1 클로드 데스크톱 앱이 한 달 전보다 약 2배 빠르게 실행된다고 프론티어랩 계정이 밝혔다

2 창이 숨겨진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타이머가 느려지고 JS 엔진이 절전모드로 빠지던 문제를 고쳐 풀스피드 부팅이 가능해졌다

3 7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 측정한 결과 macOS는 p95 기준 2.3배, Windows는 p75 기준 2배 빨라졌다

앤스로픽의 프론티어랩 계정 ClaudeDevs는 클로드 데스크톱 앱이 한 달 전보다 약 2배 빠르게 실행된다고 밝혔다. 원인으로는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시작될 때 타이머가 스로틀링(제한)되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절전모드로 넘어가던 문제를 지목했다. 이제는 창이 화면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풀스피드로 부팅되도록 고쳤고, 이 밖에 자잘한 성능 개선도 함께 반영됐다고 ClaudeDevs가 X에 올린 글에서 설명했다.

함께 공개된 이미지에는 7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 채팅 입력창이 실제로 타이핑 가능한 상태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로그 스케일로 그린 차트가 담겼다. 8월 13일을 기준선으로 두고 비교했을 때 Windows는 p95 구간에서 1.7배, p75 구간에서 2배 빨라졌고, macOS는 p95 구간에서 2.3배, p75 구간에서 1.8배 빨라졌다.

클로드 데스크톱은 브라우저 없이 PC에서 바로 쓰는 앤스로픽의 클로드 클라이언트다. 이런 데스크톱 앱은 대개 웹 기술을 그대로 데스크톱 창에 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운영체제가 배터리를 아끼려고 화면에 안 보이는 창의 타이머를 일부러 느리게 돌리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가 트레이 아이콘을 눌러 앱을 켜기 전, 이미 백그라운드에서 몰래 켜져 있던 클로드 데스크톱도 이 절전 로직에 걸려 부팅이 늦어졌던 셈이다. 앤스로픽은 최근 한 달 사이 클로드 데스크톱과 관련 도구를 계속 손봐왔다. 지난 8월 12일에는 크롬 확장 '클로드 인 크롬'의 대화 세션을 데스크톱·웹·모바일과 연동하는 기능을 내놨고, 하루 뒤인 8월 13일에는 클로드 코드 데스크톱 앱에 사용량 한도 도달 시 자동으로 작업을 이어가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번 부팅 속도 개선도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오늘 나온 어려운 말

풀이 전문은 metallab.ai/glossary

클로드 인 크롬
Claude in Chrome
크롬 브라우저 안에서 클로드를 쓰게 해주는 확장 프로그램. 대화 세션이 데스크톱·웹·모바일로 이어진다.

예약 작업
Scheduled Tasks
AI에게 한 번 실행, 정기 반복, 특정 사건 발생, 변화 감시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일을 미리 맡겨두는 기능

미토스 프리뷰
Mythos Preview
앤스로픽이 신약 개발용 단백질 설계 같은 실전 과제로 시험한 클로드의 실험용 미리보기 버전.

클로드 코드 데스크톱 앱
Claude Code Desktop
앤스로픽의 AI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를 명령어 창 없이 보통 프로그램처럼 켜고 쓸 수 있게 만든 데스크톱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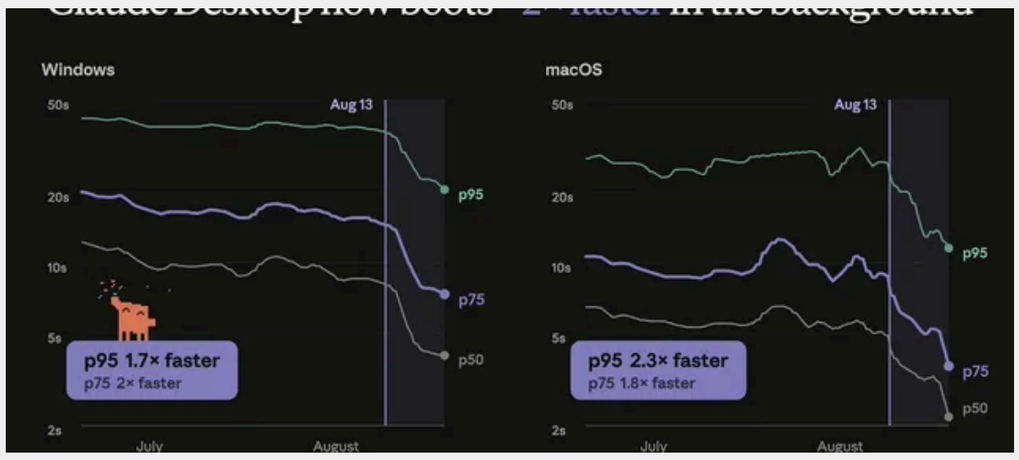
오늘 해볼 것

오늘 지면에 나온 것 중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3가지

1 클로드 인 크롬

Claude in Chrome

크롬 브라우저 안에서 클로드를 쓰게 해주는 확장 프로그램. 대화 세션이 데스크톱·웹·모바일로 이어진다.



클로드 데스크톱, 백그라운드 부팅 속도 최대 2.3배 빨라져

이게 뭔데

클로드 인 크롬은 크롬 브라우저에 설치해 쓰는 확장 프로그램이다. 새 탭이나 별도 앱을 열지 않아도 지금 보고 있는 브라우저 창 안에서 바로 클로드에게 말을 걸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보면 된다.

2026년 8월 12일부터는 여기서 나눈 대화가 그 자리에 멈추지 않는다. 크롬에서 시작한 대화를 컴퓨터의 데스크톱 앱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이어볼 수 있게 됐다. 마치 한 책의 책갈피를 꽂아두면 다른 기기에서 그 책을 펼쳐도 같은 페이지가 열리는 것과 비슷하다. 이 기능은 처음엔 Max·Team 요금제부터 적용됐다.

앤스로픽이 같은 시기에 내놓은 코워크(노트북을 덮어도 작업이 계속되는 기능), 클로드 코드 자동 재개 같은 업데이트와 묶어 보면, 클로드를 특정 화면 하나에 묶어두지 않고 여러 기기를 오가며 쓰게 만드는 흐름의 일부다.

해 보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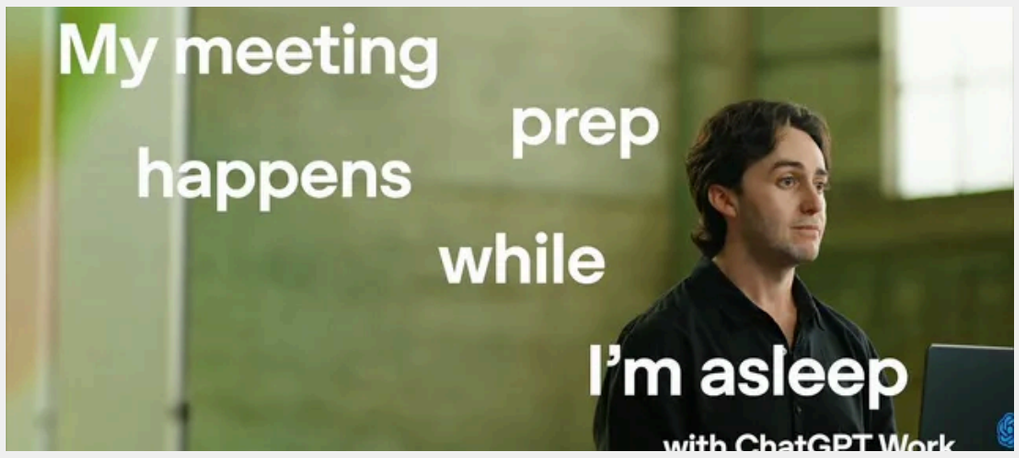
1. 크롬 웹 스토어에서 클로드 인 크롬 확장을 설치한다.
2. 크롬 브라우저 안에서 클로드에게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 내용을 요약해 달라고 요청해본다.
3.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한 데스크톱 앱이나 모바일 앱을 열어 방금 나눈 대화가 이어지는지 확인한다.

오늘 지면에서 — 클로드 데스크톱, 백그라운드 부팅 속도 최대 2.3배 빨라져

2 예약 작업

Scheduled Tasks

AI에게 한 번 실행, 정기 반복, 특정 사건 발생, 변화 감시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일을 미리 맡겨두는 기능



챗GPT 워크, 미팅 브리핑부터 전략덱까지 사내 시연 공개

이게 뭔데

예약 작업은 AI에게 「이 일을 이런 때에 알아서 해줘」라고 미리 정해두는 기능이다. 매일 아침 알람을 맞춰두듯, 혹은 특정 일이 생기면 알려달라고 부탁해두는 것과 비슷하다.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한 번만 실행하는 것, 매주 월요일처럼 일정에 맞춰 반복하는 것, 이메일이 도착하는 등 특정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실행하는 것, 그리고 어떤 자료나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지 계속 지켜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AI가 그 반복을 알아채고 「이 작업을 예약 작업으로 등록할까요」라고 먼저 물어보기도 한다.

중요한 건 실행 여부의 최종 결정은 여전히 사람 몫으로 남는다는 점이다. 무엇에 접근하게 할지, 실행 전에 언제 확인을 받을지는 사용자가 정하도록 설계돼 있다.

해 보려면

예약 작업을 등록할 수 있는 AI 챗봇에서 다음처럼 요청해보자.

1.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지난주 처리한 이슈 목록을 정리해서 요약해줘"라고 입력한다.
2. AI가 반복 주기와 실행 방식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면 답한다.
3. 등록된 예약 작업 목록에서 언제든 수정하거나 끌 수 있는지 확인한다.

반복되는 사건 기반으로도 시도해볼 수 있다. 예: "내 메일함에 특정 고객사 이름이 포함된 메일이 오면 령어 입력 화면에 직접 글자를 쳐서 작업을 맡기는 도구였는데, 이 앱은 그 과정을 클릭 몇 번으로 켜고 끄는 익숙한 프로그램 형태로 옮겨놓았다.

비유하면 전화로만 상담받던 창구를 채팅창이 있는 사무실로 옮긴 셈이다. 코드 명령을 외우지 않아도 되고, 다른 프로그램처럼 최소화해두거나 백그라운드에 켜둘 수 있다. 실제로 이 앱은 정해진 사용량 한도에 걸려도 자동으로 다음 작업을 이어가는 기능이 들어 있어, 화면을 계속 붙잡고 있지 않아도 작업이 끊기지 않게 해준다.

해 보려면

클로드 코드 데스크톱 앱을 설치했다면, 코딩 작업 하나를 맡겨본 뒤 화면을 최소화하거나 창을 닫아보라. 다시 열었을 때 작업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지, 사용량 한도에 걸렸을 때도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오늘 지면에서 — 클로드 데스크톱, 백그라운드 부팅 속도 최대 2.3배 빨라져

오늘 나온 말, 조금 더

풀이 전문은 metallab.ai/glossary

미토스 프리뷰

Mythos Preview

미토스 프리뷰는 정식으로 공개되기 전 단계에서 실전 과제로 시험해 보는 클로드의 미리보기(프리뷰) 버전이다. 신차를 판매하기 전 험한 산길이나 사막에서 시험 주행을 시키듯, 앤스로픽은 이 버전에게 사람이 몇 주씩 걸려도 어려운 '신약 후보 단백질 설계'라는 까다로운 임무를 맡겨봤다.

이때 미토스 프리뷰는 사람이 매번 지시를 내리는 조수가 아니라, 스스로 하위 작업들을 나눠 맡기고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맡았다. 48시간이라는 시간과 목표만 던져주고 사람은 자리를 비운 셈인데, 이 방식으로 15개의 표적 단백질 중 14개에 대해 실제로 결합하는 새 단백질을 설계해냈고, 그 결과는 앤스로픽이 아닌 제3의 실험실에서 검증됐다.

즉 미토스 프리뷰는 클로드라는 이름의 완제품이 아니라, '이 정도 자율성과 능력을 실전에서 발휘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기 위해 잠깐 무대에 올린 시험판에 가깝다.

크리에이터 파트너십 프로그램

Creator Partnership Program

크리에이터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힉스필드가 감독이나 제작자와 손잡고 영화·영상 작업을 함께 진행하는 협업 제도다. 영화사가 유망한 감독을 발굴해 제작비와 장비를 지원해주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다만 여기서 힉스필드가 제공하는 건 촬영 세트나 카메라가 아니라, 실제로 찍기 어려운 장면을 AI로 만들어주는 제작 도구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이 곧 그 작품 전체가 힉스필드 도구로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실사 촬영, 게임 엔진으로 만든 배경, AI로 생성한 장면이 뒤섞인 영화라면 그중 AI 생성 부분에 힉스필드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도로 읽는 것이 정확하다. 감독 크레딧이나 제작 주체 표기가 회사 홍보 자료와 실제 영화 제작진 페이지에서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파트너십 참여 사실과 실제 제작 기여도는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힉스필드 입장에서는 자사 도구로 만든 성공 사례를 홍보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감독 소개 페이지에 '아마존 1위' 같은 성과가 함께 적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언리얼 엔진 5

Unreal Engine 5

언리얼 엔진 5는 컴퓨터 화면 안에 가상의 공간과 물체를 입체적으로 세우는 소프트웨어다. 원래는 비디오 게임을 만들 때 쓰는 도구지만, 게임 속 배경을 짓는 방식과 영화 세트를 짓는 방식이 비슷해서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 제작에도 자주 쓰인다.

비유하자면 미니어처 세트를 손으로 깎는 대신, 컴퓨터 안에서 벽돌 하나 조명 하나까지 배치해 건물과 방을 통째로 짜맞추는 작업이다. 이렇게 만든 공간은 카메라를 어느 각도로 돌려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미리 3차원으로 세워져 있어서, 실제로 짓기 어렵거나 지금은 사라진 장소도 화면에 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배경과 실사 촬영을 합치면, 배우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 안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에이전트 네이티브

Agent Native

에이전트 네이티브란 사람이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직접 쓰는 것을 전제로 처음부터 설계된 서비스나 도구를 말한다. 건물에 비유하면, 처음부터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도록 문턱 없이 지은 건물과 나중에 급하게 경사로를 덧붙인 건물의 차이와 비슷하다. 둘 다 결국 휠체어가 지나갈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지은 쪽이 훨씬 자연스럽고 막힘이 없다.

기존 서비스들은 원래 사람이 화면을 보고 버튼을 누르도록 만들어졌고, 최근 들어 AI 기능을 하나씩 덧붙이는 식으로 바뀌어 왔다. 반면 에이전트 네이티브로 설계된 서비스는 로그인 화면, 애매한 메뉴 구조,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안내문 같은 것들을 걷어내고, AI 프로그램이 곧바로 읽고 판단하고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 즉 AI를 나중에 얹는 게 아니라, AI가 쓸 것을 전제로 맨 밑바닥부터 다시 짓는 접근이다.

요즘 코드 편집·개발 도구 회사들이 이 표현을 자주 쓰는 이유도 여기 있다. 사람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고치던 화면에, 이제는 AI 프로그램이 대신 코드를 읽고 수정 제안을 올리고 저장소를 관리하는 일이 늘면서, 그 작업 흐름 자체를 AI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가 나오는 것이다.

오늘 기사, 마저 읽기